

연구논문

환관정치의 구조에 관한 연구*

박 상 규**

- I. 서론
- II. 고대중국의 환관정치의 발호구조
- III. 조선 환관정치의 발호구조 분석
- IV. 환관정치의 특성 및 함의

〈요약〉

본 연구는 환관 역사 4천년의 중국사에서 분석된 환관정치의 구조를 토대로 조선 연산군 대 환관정치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중국 고대사에서 나타난 환관정치의 사회적 구조는 세 그룹 간 역학관계이다. 세 그룹은 군주, 군주의 외척, 조정관료이다. 이들 간 정치적 역학관계는 환관정치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바, 이것은 왕과 환관과의 관계구조, 환관과 외척세력과의 구조, 마지막으로 환관과 당파세력과의 구조 관계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구조는 조선 연산군 대의 환관정치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본 연구는 환관정치의 역사적 구조로부터 현대 조직에 적용가능한 참모의 역할에 대한 토대를 찾아내는 것이다. 참모역할과 관련한 구조적 부적절성의 원인과 분석의 미흡함이 현대 행정조직에서 참모론에 대한 설득력있고 타당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환관정치, 환관정치의 구조, 왕과 환관의 관계, 환관과 외척세력의 관계, 환관과 당파세력의 관계]

I. 서론

조직이란 정치판인 동시에 정치적 도구이다(Bolman & Deal, 1991: 338). 조직은 모호성과 다양성 그리고 희소성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정치적 역학(political dynamics)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교양대학(skpark@kornu.ac.kr)

은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조직연구에 있어서 정치적 인식과 분석은 중요하다. 또한 조직에 대한 정치론적 관점은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적 관점의 초점은 갈등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갈등은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조직에 정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정치가 있느냐의 문제이다(Bolman & Deal, 1991: 308).

이처럼 조직현상에는 정치권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정치의 문제는 조직연구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조직정치와 권력의 영역은 비가시권의 범주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불능의 원초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정치행위에 대한 연구는 조직연구에 중요하며, 그에 대한 선행연구의 연대기는 기존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이맹주, 2017; 정희진 외, 2018).

특별히, 비서권력과 비서정치의 영역은 더욱 비가시권의 영역이다. 그러나 현대 조직에서 비서 혹은 참모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크며, 역할이 명백히 실존한다. 관찰자료 접근과 획득의 어려움이 참모기능의 모형 정립을 곤란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 부정의의 요인을 분석하지 못하였고, 참모론에 대한 설득력있고 타당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이유가 있다.¹⁾

조직에 대한 정치적 관점은 조직내 정치적 행위의 근원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Bolman & Deal,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환관정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대적 시각에서의 비서정치권력론에 대한 단초를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환관이 정치권력을 행사하게 된 이면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군주가 왕권강화를 위해 이들을 이용하면서 정치권력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에서 환관의 정치권력이 배태되는 것이다.²⁾ 또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사대부와 이를 억제하려는 군주 사이에서 환관세력이 이용되기도 하고, 권력 장악을 위한 파당적 정쟁으로 환관세력이 발호하는 구조도 있었다. 다른 한편 환관 세력은 절대군주의 후광 아래 막강한 정치권력을 호가호위(狐假虎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관정치의 생성과 숙주의 생태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

1) 이러한 표현은 다음의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황병식 역. 정의론(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1999) 이학사. 2017. p.9.

2) 헤로도투스가 집필한 서양의 최초의 역사서인 「역사」에서, 그는 “환관은 군주가 신하를 제어할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신비적인 거리 역할을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헤로도투스 저, 천병희 역. 「역사」 도서출판 숲. 2009; 三田村泰助, 2015: 48).

다. 역사 속의 환관의 충간(忠諫)이든 부패든 그것은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

환관의 성격은 군주권의 발달과 함께 변했지만 비밀엄수와 수호라는 기본 성격은 동양적 군주제와 더불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환관의 존재와 역할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치권력적 측면만 부각시키면 환관의 국정개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다. 4천년 이상의 환관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환관정치 연구의 권위자인 일본 미타무라 다이ске(三田村泰助)는 군주와 환관의 관계는 실체(形)와 그림자(影)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그림자인 환관에 대하여 악(惡)의 레테르(label)가 붙어있는 것은 대부분의 역사가 환관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다루었기 때문으로 기술한다(三田村泰助, 2015: 39-40).

그러나 역사 속에서 환관의 군주보좌 역할과 기능은 국가운영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직으로 긍정적인 존재 요소가 더 많다. 전제군주시대 초기 환관의 역할은 대부분 군주의 근시(近侍) 조직으로 군주의 최측근에서 시종하는 임무가 대부분이었으나, 국가의 기초가 확립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들의 역할은 국가 운영과 관련된 영역까지 확대되어 군주와 관료, 군주와 백성사이에 분쟁의 조정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역할의 확대 강화가 시대상황에 따라 변모되었다(장희홍, 2006a: 56).

현대적 의미의 비서 혹은 참모는 중국과 한국 고대사의 환관³⁾으로부터 그 역사성과 실체성을 갖는다.⁴⁾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탐구한다. 환관의 역사가 4천년⁵⁾이 되는 중국의 환관정치에 대한 일본 학자의 선행연구로부

3) 환관(宦官, eunuch)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거세를 당하고 궁중에서 잡역이나 심부름을 하는 몸종 혹은 사환(使喚)의 신분을 말한다. 반면 내시(內侍)는 국왕의 근시(近侍)임무를 맡은 자이다. 환관 중에서 내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환관과 내시는 혼재되어 사용된다. 환관은 관직에 있는 자, 환자(宦者)는 관직에 있지 않은 자 혹은 낮은 관직에 있는 자를 일컫는다. 고려시대에는 내시와 환관은 엄격하게 구분되었으며, 조선시대 성종 이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환관보다는 환자라는 용어가, 조선전기에는 내관(內官)과 환관이라는 용어가, 조선후기에는 내시·내관·환관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었다(송기호, 2010: 52; 차문수, 2009: 4; 장희홍, 2006a: 2; 장희홍, 2006b: 14).

4) 차문수의 연구(2009)는 결국 현대적 참모 혹은 비서의 역사성은 환관제도로부터 관계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현대 행정조직에서 참모론에 대한 규범적 정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환관의 그것으로부터 실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학문적 역사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5) 중국의 환관조직의 변천을 개관하면, 중국에서 환관의 존재는 중국 역사의 시작인 오제(五帝) 시대부터라고 하나 당시에는 잡무에 종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사환의 직분을 벗어나 환관은 궁중에서 궁궐과 왕족을 지키는 고유 업무를 가지게 된다. 환관의 조직화는 진시황제 때 체계화된다. 당대(唐代)에는 중앙정부의 조직근간인 3성 6부와 별도로 궁궐의 일을 맡아보던 기관으로 내시성(內侍省)이 존재하였다. 내시성 하에는 여관(女官·궁중

터 중국 고대사에 나타난 환관정치의 구조를 살펴본다. 또한, 환관정치에 대한 우리의 경우는⁶⁾ 조선 연산군 대에 환관정치의 폐해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자원을 통하여 환관정치의 사회적 구조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환관정치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최근 정권에서 나타난 비서정치의 사회적 숙주관계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비서정치 폐해의 생성 및 지속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서정치의 선순환을 위한 역진화의 단초를 탐색하는데 또한 유용할 것이다. 중국에는 현대 조직에서의 참모역할론에 대한 모형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II. 고대중국의 환관정치의 발호구조

환관정치의 구조, 즉 환관정치가 발호(跋扈)하는 구조는 세 차원에서 분석된다.⁷⁾ 중국 고대사에서 나타난 환관정치의 사회적 구조는 세 그룹 간 역학관계이다. 세 그룹은 군주, 군주의 외척, 조정관료이다. 이들 간 정치적 역학관계는 환관정치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바, 이것은 왕과 환관과의 관계구조, 환관과 외척세력과의 구조, 마지막으로 환관과 당파세력과의 구조 관계로 분석되었다.

에서 왕이나 왕비를 가까이 모시던 내명부內命婦, 나인, 궁녀를 지칭함)에 관계되는 액정국(掖庭局). 궁궐의 궁문을 관리하는 궁위국(宮闈局), 궁궐 내 질병관리의 해관국(奚官局), 수레가마관리의 내복국(內僕局), 궁중비품관리의 내부국(內府局) 등 5국이 존재하였다. 명대에는 환관 유약우가 궁정내부 실정을 기록한 「작중지(酌中志)」가 있어 환관조직은 12監 4司 8局으로 이를 24아문(衙門)이라한다(차문수, 2009: 15-16).

- 6) 환관 자체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주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의 제시정도로 마친다. 신라시대의 환관에 대해서는 송기호의 연구(2010), 고려와 조선의 환관제도에 대해서는 차문수의 연구(2009), 환관의 선발과 교육에 대해서는 박인수의 연구(2003)·차문수의 연구(2009)·박상진의 연구(2005), 환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문수의 연구(2009)가 있다.
- 7) 사회적 구조와는 별개로 환관정치가 가능한 배경으로는 환관에 대한 군주의 총애와 편애, 환관의 지적 능력의 우수함으로 분석 기술되고 있다(三田村泰助, 2015). 한편, 정두언은 그의 저서(2017:337)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흑역사는 정치자금 문제, 권력의 사유화,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을 제시한다.

1. 외척 정치와 환관: 황태후의 섭정

중국 고대에서 청 말기까지 지속된 외척정치의 시작은 한나라 고조의 부인 여후(呂后)에서부터이다.⁸⁾ 황태후의 섭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여후는 한 고조가 자기 아들 혜제(惠帝)를 황태자 자리에서 폐하고, 후궁 척씨의 아들 조왕 유수(趙王 劉遂 ?-기원전 154년)를 황태자 자리에 보하라는 음소와 고조 또한 조왕이 자신을 닮아 혜제 태자를 폐하고 조왕을 태자로 보하려하자 주창(周昌)이라는 어사대부(御史大夫)가 간언하여 이를 막아내었다. 한 고조가 죽자, 여후는 아들 혜제가 돌봐주던 조왕을 황제가 수도를 비운 사이 독살하고, 척씨의 손발을 자르고 안구를 도려내고 귀를 불로 지져 귀머거리로 만들고 목이 쉬는 약을 먹여 병어리로 만들고 이런 척씨를 변소에서 살게 하고 인간돼지라고 부르다. 이를 후에 알게 된 혜제는 실망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술과 음락에 빠져와 같은 잔학한 행위에 충격을 받은 혜제는 실망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술과 음락에 빠져 몇 년 후 죽는다. 이후 차기 황제 즉위 문제가 발생한다, 황후 자신의 자식이 없자 임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비에게서 난 아이를 황후의 아이라고 속이고 즉위시켰다. 여후는 생모를 살해하였다. 진상을 알게 된 소년 황제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는 말을 들은 여후는 내정 깊숙이 황제를 감금하고 자신이 여제(女帝)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의 이상한 분위기, 즉 대신

8) 한나라에서 외척정치의 생성배경은 여후의 개인적 특성보다도 문화적 속성에서 그 배경을 이해한다. 춘추전국시대에서 진나라까지 전통적인 부계사회와 봉건군주 중심으로 왕권이 발달하여 여제(女帝)의 등장은 없었으나, 한나라에 들어서 여제의 등장은 다른 차원에서 설명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는 초(楚)지역의 서민계급이 만들어낸 왕조이다. 모계제의 민족이고, 그들 고유의 모계 가족제를 궁정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한나라 전체를 통해 비쳐진 외척 전권의 기반이자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이다(三田村泰助, 2015: 126-127).

9)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주요 정책이나 관리 인사에 대한 서경(署經)·봉박(封駁)의 권한을 행사하던 기관을 의미한다. 즉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의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은 관청이다. 이때 서경이란 관리를 등용할 때의 절차로 관원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이조(吏曹)에서 직을 받을 사람의 성명·문벌·이력·내외 사조(內外四祖) 및 처의 사조를 기록하여 사헌부·사간원에 제출하면 양사(兩司)에서는 수직자(受職者) 사조 및 본인의 신상에 하자 유무를 조사하여 하자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양사의 관원들이 모두 서명하여 동의하는데 이를 서경이라고 함. 이조는 이 때 고신(告身: 사령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봉박이란 왕명 및 조칙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봉합하여 되돌려 반박 의견을 시달한 제도. 중국에서는 당나라 급사중(給事中), 명나라 육과급사중(六科給事中), 송나라 은대사(銀臺司) 등이 맡은 직무이고, 한국의 경우 고려와 조선시대 연관(言官)이 맡은 주된 직임 중의 하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들의 모반을 걱정하여 여씨의 친인척을 궁정의 수비를 맡는 근위병 지휘권을 주게 하여 방비하였다. 이것을 사마천은 “여씨의 권력은 그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평가하다. 한 왕조에서 일어난 외척 전권 제1호였다는 것이다(三田村泰助, 2015: 124-126).

외척정치가 환관권력의 발호와 연동되는 구조를 보자.

여후에게 발탁된 환관 장석(張釋)의 경우이다.¹⁰⁾ 태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대신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환관이 정령(政令)을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후궁에 남자의 출입을 금지한 제도는 후한 때였으므로, 전한에서는 소수의 남자들이 내정에서 관리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황태후의 거처에는 환관뿐이었다. 당연히 환관이 개입할 틈새가 생겨났다. 주변에는 환관들뿐이라서 태후는 자연히 환관에게 중요한 정무를 상담했는데 그것은 환관에게 국정참여를 허락한 것이었고 권세를 지어주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환관은 황태후의 섭정체제하에서 제도적으로 권세를 자연스럽게 쥐게 되었다. 황태후의 섭정에 따른 외척 정치가 출현하면 환관이 권력을 잡게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三田村泰助, 2015: 129).

2. 파벌정치 속의 환관

조정관료들의 봉당·파당의 권력투쟁 과정에 환관권력의 틈새와 발호의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명(368-1662)의 시대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명의 중앙관제의 특징 중 하나는 승상제도를 폐지했다¹¹⁾는 점이다. 명 태조는 승상을 폐지한 후에 직접 육부와 백사(百司)를 지휘하여 친히 독단하였지만 사실은 무척 처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비서처(祕書處)’를 두어 황제를 도와 정사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¹²⁾ 명 중엽 이후로 각의 업무를 주재하는 내각대학사¹³⁾를 수보(首輔)라고 불렀으며, 그 나머지에 차보(次輔)·군보(群

10) 당시 장석은 환관령(환관의 장관)과 대알자령(문 수호와 손님을 맞이하는 알자謁者의 장관)을 겸직하고 있었다(三田村泰助, 2015: 129).

11) 홍무 13년(1380)에 명 태조는 원말 승상의 권력이 황제를 폐위하고 옹립할 만큼 비대해졌던 것을 거울삼아 명의 승상 호유옹이 권력남용으로 정치를 어지럽히자 그를 죽이고 즉각 중서성을 폐지토록 선포하는 동시에 승상을 파면하고 설치하지 않았다(출처: <https://ko.wikipedia.org/>).

12) 명나라의 중앙관제 특징 중 하나는 환관의 관아가 정부기구를 능가하였다는 점이다. 명조의 환관기구는 24아문 이라고 불렸고, 12감 4사 8국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역사상 명조 환관기구의 방대함과 설치의 완벽함은 전무후무하여 관료기구와 서로 필적하기에 충분하였다(출처: <https://ko.wikipedia.org/>).

13) 명의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승상(丞相)인 호유옹(胡惟庸)의 권력남용과 독단전횡(獨斷專橫)

輔)라고 하였다. 내각의 직책은 “황제에게 옳고 그름을 주청하는 고문(顧問)역할을 하고, 비답(批答: 상소에 대한 임금의 대답)을 초안하는 것이다(출처: <https://ko.wikipedia.org/>).

명나라 중반 세종(1522-1567)대에는 이전 군주와는 달리 환관을 멀리하고 조정관료들과 정사를 도모하였지만, 역사는 단속이 아니라 연속이다. 즉, 이전 군주 대에서 발호하였던 환관세력은 세종대에서 완전히 무력화 되었다 라기 보다는 권력 재창출하기 위한 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과정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공식 내각과 그림자 내각(환관세력을 지칭함)이 서로 결탁 혹은 배척하며 그것을 축으로 파벌정치가 전개된 것으로 분석한다(三田村泰助, 2015: 248).

명나라 파벌정치의 중심축은 연관세력¹⁴⁾과 환관세력에서 본격화된다. 환관 엄송(嚴嵩)이 입각했을 때, 수보 하언(夏言)은 엄송이 들어와도 자리 내주지 않았고, 친목 교제를 위한 향연도 불허하였다. 어느 날 간신히 향연을 열고 엄송이 하언을 초대했는데 하언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서너 잔 마시고 퇴장하였다. 엄송이 분해하여, 황제에게 참언(앞일에 대하여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말)하여 하언을 刑死하게 하였다. 하그림자 내각(환관세력)과 공식 내각(조정대신그룹)과의 권력갈등이 향후 파벌정치로 전개된 배경이 되었다(三田村泰助, 2015: 248-249).

환관 엄송 부자¹⁵⁾는 부정 폐해¹⁶⁾를 자행하기 위하여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번

을 미워하여 주살(誅殺)한 뒤로는 재상을 두지 않고 스스로가 육부(六部)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그뒤 황제의 자문에 응하던 내각(內閣:궁중도서관)의 대학사가 증용되었다. 처음에는 그다지 두드러진 존재는 아니었으나, 홍희제(洪熙帝)·선덕제(宣德帝) 무렵부터 실제적인 재상으로서의 구실을 하였으며, 가정제(嘉靖帝) 때는 그 예우(禮遇)를 육부상서(六部尙書)의 상위에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재상이 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각대학사 [內閣大學士] (두산백과).

14) 명 태조는 세론(여론)을 중시하여 통정사(通政司)를 설치하여 지방하급관리의 호소와 소송, 백성들의 진정 탄원 수리가 활발하여 언론은 자유로웠다. 이와 같은 태조의 정책은 관료의 감찰기관인 도찰원(都察院), 어사(御使)의 권력이 강해지는 이유가 된다. 즉 그들은 관등은 낮으나, 규탄(糾彈)이 직무라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찰관으로서 어사의 업무와 유사한 급사중(給事中)이라는 직책도 존재하였는 바, 이들을 다 합쳐서 연관(言官)에는 급사중, 어사, 도찰원을 총칭하는 것이다(三田村泰助, 2015: 249).

15) 이들에 대한 인물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엄송은 사이비 군자에다 단지 시문에 재주가 있을 뿐이었지만 자라목에 애꾸눈인 그의 아들 세 번(世蕃)은 날완(매서운 수완)한 대악인이었으며, 그들은 금권정치를 펼쳤다(三田村泰助, 2015: 249-250).

16) 이권과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금권정치를 의미하며 환관 엄송부자의 패관매직을 자행한 처사를 의미한다.

거로운 언관들을 대부분 정치적으로 추방시켰다. 그러나 엄승 부자의 추문이 소문이 나면서 세종의 신임이 식어갈 무렵 내각의 수상격인 서계(徐階)가 입각한다. 서계는 언관들 중에서 자기의 문하생과 동향인 출신을 정계로 끌어들이 정치적 세력을 키우고, 언관의 감찰내용을 가지고 마침내 엄승 부자를 탄핵하고 추방시킨다.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이후 언관세력들은 여러 파벌이 성립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파벌정치가 성행하게 되다. 다른 한편, 환관 엄승 부자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였던 환관세력들은 서계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관료와 언관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감을 가지는 세력 형성의 정치적 요인이 된다(三田村泰助, 2015: 250).

언관세력 내부에서의 권력갈등을 설명한다. 서계의 내각에는 차석으로 고공(高拱)과 훗날 철완재상으로 유명한 장거정(張居正)이 있었다. 고공은 본 성품이 오만한데다가, 새로 즉위한 목종(1566-1572)의 교육을 담당한 바 있어 그것을 믿고 서계에게 대항하다가 서계 파의 언관들에게 탄핵당해 관직에서 내려 앉는다. 서계도 정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은거하면서, 내각의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지방에는 해고 관리들이 재기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 바, 그러기 위해 파벌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당수를 내세우는 것이 선결과제였던 바, 이때 주선자 소방(邵芳)이라는 자가 은거 중인 고공을 설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소방은 그림자 내각의 환관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연줄을 만들어 놓는다. 특별히, 고공과 친한 환관 진홍(陳洪)을 통해 사례장인(환관의 장)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고공이 수상에 임명되고 정계 복귀에 성공한다. 고공은 이 부상서¹⁷⁾(吏部尙書)를 겸해 낭인 관리들을 속속 부활시켰고, 한 때가 된 진홍도 그림자 내각의 수반이 되었다. 이처럼 파벌의 형식과 정권 획득을 위해 안팎으로 결탁이 이루어 졌다(三田村泰助, 2015: 250-251).

이와 같은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그림자 내각 쪽에서 정치적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환관의 세력갈등을 살펴 본다. 차기 사례장인으로 기대했던 빙보(憑保)는 진홍이 새 파벌을 등에 업고 자신을 앞질러 장인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그 원흉인 고공을 심하게 원망한다. 한편 내각 쪽에선 고공이 수상이 되자 나머지 인사들은 그의 전횡에 염증을 느껴 가까이 하지 않지만, 차기 수상자리에 욕심있던 장거정은 그에게 낮은 자세로 아첨한다. 결국 내각의 장거정과 환관 빙보가 정치적으로 결탁한다. 둘은 기회를 엿보다가, 급기야 목종이 급사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황제의 유조(遺詔)에 기록된 내각의 대신들이 정국을 수습하라는 내용 때문에 환관들은 정치적으로 물리는 형

17) 고려로 보면 이부의 장관, 조선의 경우 이조 판서에 해당한다.

세를 우려하여 유조(遺詔:임금의 유언)를 ‘빙보와 논의하라’라는 것으로 수정한다. 그와 동시에 고공은 새로 즉위하는 신종(神宗:1573-1620)이 겨우 10세이기 때문에 환관의 전권을 우려하여 환관세력을 축출하려는 음모를 세우고, 이것을 알게 된 장거정은 환관 빙보와 협의하여 고공을 파면한다. 이렇게 해서 새 정권의 안팎에 ‘장거정-빙보 라인’이 형성되고, 이후 장거정의 철완정치가 시작된다. 새로 즉위한 신종은 장거정이 동궁시절에 교육을 담당한 이력도 가세했다(三田村泰助, 2015: 251-252).

이제 환관정치의 폐해를 살펴 본다. 방만한 국정은 곧 국가재정의 적자를 초래하였고, 신종은 은산(銀山:은의 생산) 개발을 추진하고, 환관에게 담당케 하였다. 채광이 안되자 재정 확보차 물품세 부과 등 증세를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관들은 자기 몫 챙기는 등 비리가 만연하였다. 당연히 폭정에 여론은 들끓게 되다. 지도적 역할을 할 만한 곳은 서원(書院)이었으며, 서원에는 사숙(私塾)이 많았다. 이들은 주자학을 연구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혁신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인 동림당(東林黨)을 창당하였다. 관료들은 출신지별 파벌 형성에 혈안이 되었고, 정책차이보다는 이해관계로 결성된 파벌이었다.¹⁸⁾ 동림당 정파를 정부에 끌어들이 사람은 환관 왕안(王安)이었다. 이 공세로 비바람을 맞게 된 기존의 당인들은 환관에게 도움을 청하여 환관당이 만들어졌다. 이를 엄당(閹黨)이라 한다. 정계는 동림당과 엄당의 대립정국이 된다. 이 시끄러운 정국에 편승한 자가 환관 위충현이다. 천계제(天啓帝:1620-1627)의 유모 객씨와 결탁하여, 내정 지배, 경찰기관인 동창 장악, 환관 대항세력 동림당 인사 투옥(자신한테 동조하는 관료들 상당수를 배경으로) 등 환관으로서 생신(生神)이 된 자는 중국 역사상 위충현 한 명 이었다고 할 만큼 환관정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나타났다(三田村泰助, 2015: 253-255).

3. 군주의 전제정치 강화 - 대신(관료) 견제

중국 사회는 10세기를 전후로 내각관료의 임용제도가 크게 바뀐다. 당나라 이후 특권계급인 귀족세력이 소멸하고, 상대적으로 군주권이 강화된다. 군주의 수족이 되어 활동하는 관료세력이 급성장하게 된다.¹⁹⁾ 국외정세로는 한족과 이민족과의 갈등이

18) 관료들은 출신지별로 파벌을 형성했다. 안휘성 신성 출신들이 모인 선당, 강소성 곤산의 곤당, 산둥성의 제당, 호남·호북의 초당, 절강성의 절당 등이다(三田村泰助, 2015: 254).

19) 한나라시대의 관리임용제는 호주 추천제였으며, 당나라는 과거제보다는 음서제가 성행하였고, 목칙(황제의 직접 임명)제도, 절도사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관료의 주류는 귀족이 차

심했던 시기로 위쪽으로는 몽골족에 의한 중국 본토 점령, 그 이후엔 문화와 경제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강남지역은 원나라의 식민지배체제하에 있었다. 이러한 내외 정세 속에서 명나라(1368~1644년)가 탄생하였다.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정치제도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핵심내용은 군주권 강화이다.²⁰⁾ 또한, 주원장은 환관억제책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환관의 외신 관직 겸직 금지, 최고4품으로 지위 제한, 모든 관청과 환관의 관청 간에 공문서 왕래 금지 등이었다. 그런데 환관억제책은 실패하였다. 전말은 다음과 같다. 태조는 아들(연왕, 후의 영락제)을 왕에 봉하고, 지역의 영토와 쌀로 주는 급여를 하사했다. 그러나 다른 왕들에게는 군사를 갖추게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북방 만리장성 위쪽의 몽골족 침입에 대비하여 연왕에게는 군대를 갖추게 허락하였다. 이것이 훗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연왕은 군사를 일으켜 황제가 되어 영락제가 되는 것이다(三田村泰助, 2015: 223-224).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태조는 장남이 자신의 재직 중에 죽자 손자 건문제(建文帝)를 황태손에 임명하였다. 황위문제로 숙부 연왕(燕王)과 조카 건문제의 싸움에서 연왕이 승리하고 영락제(永樂帝)가 된다. 이 싸움에서 연왕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환관의 도움이었다. 건문제는 태조의 환관억제책(내정에만 전념케함)을 잘못 이해하여 환관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이에 환관들은 연왕이 군사를 일으키자 건문제 측의 정세를 연왕에게 제공하여, 연왕측이 승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영락제는 환관을 중용하게 된다. 영락제는 즉위 후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책을 세우는 바, 이 또한 환관의 권력화의 요인이 된다. 영락제는 비밀경찰인 동창(東廠)을 만들고 불온분자를 적발한다. 환관이 그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환관은 사회정화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동창의 장관은 환관의 두 번째 최고관직인 병필대감에 해당한다. 영락제는 환관에게 경찰권과 군대의 감찰권까지 준다. 특히, 영락제는 환관에게 국외출사 임무까지 맡긴다(三田村泰助, 2015: 224-229).

환관의 권력화 원인은 다른 곳에도 있었다. 명 5대 선종때 환관학교 내서당(內書

지하고 있었다. 10세기 이후 송나라부터 과거제가 달라진다. 과거시험과목이 당나라대의詩와 文에서 경학과 정치문제를 다루었다. 능력본위의 강대한 관료조직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진사출신 중 정원문제로 중앙관직 못가지고 지방 사회 지도층을 구성하는데, 이는 사대부 계급이 되었고, 이전의 호족세력이나 귀족계급과 다르다(三田村泰助, 2015: 215-217).

- 20) 첫째, 재상제도를 폐지하고, 각부의 장관들과 황제 직결제도 시행이다. 따라서 황제의 독재권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민정과 군정의 구분, 행정사무 및 관리 복무상태 점검의 감찰관제도, 삼권분립 시행 및 삼권을 황제에게 직결시키다. 셋째, 지방정치에서 지방수령과 황제 직결하다(三田村泰助, 2015: 222).

堂)을 세우면서 제도적으로 환관지식인이 탄생하게 된다. 내서당 출신 환관을 정도(正途)라 하였다. 그러나 환관학교가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명 태조가 재상정치까지 없애면서 군주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이유에서 내서당을 세운 이유가 본질이다. 왜냐하면, 군주가 재상 폐지에 따라 결재 상주문(上奏文)이 쌓이게 되고, 누군가가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즉위 4년차에 사례감의 부국(部局)으로 文書房을 특설한 것이 이를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글을 모르는 무식한 환관은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태조가 재상정치를 폐지하여 황제는 재상이 행하던 사무를 인수한 것이 되어, 일체의 정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군주에게는 글재주가 있는 비서가 필요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림원에서 영재를 뽑아 비서관을 겸해 상당 역 맡게 하였다. 직명은 내각대학사, 직급은 정5품으로 관등은 낮으나 독재군주의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측근자이다. 후에는 재상이라고 부르게 된다(三田村泰助, 2015: 230-236).

환관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구체적 배경은 황제가 재결을 하는 경우 案文(문서를 초안함)하였기 때문이다. 황제에게 올린 상주문에는 황제가 일일이 결재사항을 써넣어야 했다. 이를 비답(批答: 상소에 대한 임금의 대답)이라한다. 그런데 비답을 하기 전에 대학사가 미리 상주문을 검토하고 적절한 처치를 고려해 비답의 원안을 작성했다. 이 원안을 표의(票擬)라 한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학사가 작성한 표의가 비답이 된다. 이처럼 대학사가 은연히 실력자인양 행사하고 재상처럼 간주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대학사는 보통 3-4명으로, 서열에 따라 수보(首輔), 차보(次輔), 삼보(三輔)라 한다. 수보가 기초하고 다른 사람은 조언하므로 속칭 수보가 수상, 다른 사람은 부수상이 된다. 따라서 수보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 내각을 그림자 내각이라고 부르는 배경이 된다. 그림자 내각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사례감태감(환관 12감의 수장)의 수장을 장인태감(掌印太監), 그 아래에 병필수당태감(秉筆隨堂太監 혹은 병필대감)이 3-4명, 많을 때는 8-9명이다. 병필대감 중에서 황제가 총애하는 자가 동창의 장관이 되다. 장인태감이 내각의 수보, 동창의 장관이 차보, 나머지가 삼보 이하에 해당한다. 병필대감의 직무는 황제의 비답을 대필, 정확하게 말하면, 표의를 대필하는 것이다. 이때 환관이 청서(淸書: 초草 잡았던 글을 깨끗이 베껴 씀)한 경우에만 정식으로 황제의 비답으로 된다. 내각의 표의를 보충해야 하거나 이론이 있을 때는 장인태감과 동창의 태감이 협의해 글로 써서 표의에 첨부해 황제에게 올렸다. 이것을 탑표(塔票)라고 한다. 환관측이 작성한 탑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표의의 내용을 변경해 비답의 내용이

되는 일도 있었다. 환관의 전권이 강한 경우에는 표의조차 없었다. 후에 그림자 내각이 공식 내각을 제압할 요소가 이미 이 무렵부터 제도적으로 잠재해 있었다. 측근의 제1인자인 내각이 환관에 의해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이런 점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못된 환관이 나타나 동창을 좌지우지하며 정보를 날조하면 정권의 농단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다(三田村泰助, 2015: 236-239).

Ⅲ. 조선 환관정치의 발호구조 분석

조선시대 환관정치의 구조와 맥락은 국왕의 왕권강화책, 국왕의 외척세력, 조정대신(간) 그리고 이들 간 권력관계의 문제이다. 환관정치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발호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당시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선의 환관정치의 발호구조를 분석하는 시기인 연산군대의 정치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환관정책의 배경과 구조를 분석한다.

1. 연산군대의 정국과 환관정책

연산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종대부터 성장한 사림세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훈구세력을 이용하였다. 무오사화(1498년)를 통하여 사림세력을 제거하고, 갑자사화(1504)를 통하여 훈구파와 잔여 사림세력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관권의 강화도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장희홍, 2002: 170).

초·중기의 정국은 사림세력 중심의 대간(臺諫)의 견제와 연산군의 왕권 정립의욕으로 대립구도가 치열하였다²¹⁾(장희홍, 2002: 173-174). 환관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왕

21) 환관 김순손(金順孫)의 처벌 문제는 두 가지 사안이 연관되어 정국갈등상황을 보여준다. 연산군은 집권 이후 신하들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폭정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으며, 신하들의 계속된 왕권견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노출되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환관들을 엄중히 관리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관 김순손이 연산군에게 충간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단(事端)이 벌어진다. 연산군이 초상 중에 암·수 말을 내정(內廷)에 끌어 들여 교접하는 것을 구경하고 행위가 부도(不道)한 것이 많아 간하여 말렸다. 이에 연산군은 국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삼아 그리고 환관에 대한 엄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귀양조치 및 사형을 명한다. 이에 대간에서는 국상중에 처형은 적절치 못하며, 처벌에 대한 응당의 죄에 대한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연산군의 명에 제동

대처럼 일관되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²²⁾

그러나 연산군 초기의 대등한 군신관계는 무오사화를 계기로 정국은 연관권 주도에서 왕권 중심으로 변모되었다(장희홍, 2002: 178). 즉 연산군은 성종대부터 득세한 사림세력을 제거한다. 세조대부터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성종대에 사림에게 그 세력을 빼앗긴 훈구세력을 이용한 것이다. 물론 이후 갑자사화에서는 사림잔당세력과 훈구세력마저 제거함으로써 왕권의 강화를 구축한다. 여하튼 무오사화를 계기로 연관권을 통하여 연산군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제거한 것이다.

반면에 왕권 강화 조직은 확대되었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내시부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인원 증대를 도모하였다. 내수사(內需司: 궁중에서 쓰는 쌀·베·잡물·노비 등을 주관하는 기관)를 환관에게 맡기거나, 승정원이나 장악원(掌樂院: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청) 등의 인원을 증치하였다. 이러한 환관우대정책은 왕의 명령에 대한 절대복종과 수행으로 왕권강화책인 것이다. 반면에 환관 김순손²³⁾과 김처선²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환관의 간언은 국왕의 절

을 건다. 즉 환관 김순손을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이유만 있을 뿐 정확한 죄상(罪狀)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연산군은 대간들의 청에 따라 김순손을 용서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연산군 중기까지, 즉 무오사화 전까지 연산군의 전횡에 대한 대간들의 견제는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울 만큼 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장희홍, 2002: 174-178).

22)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전반적으로 환관에 대한 정책은 엄격하였다. 환관을 탄핵한 일들이 실록에 종종 등장한다. 중국의 경우, 후한, 당, 명나라 때에 환관이 발호했으니 환관이 재상이 되거나 황제를 시역(弑逆: 왕을 죽임)하기까지 했다. 당나라 때에 환관은 경종을 죽였고, 왕조 말기에 이르러서는 환관의 난이 계속 일어났다. 우리 역사에는 원나라 지배기에 일시적으로 환관이 득세하고 환관 최만생이 공민왕을 죽인 사태가 일어났지만, 전반적으로는 환관 세력을 억누르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 중국에서 벌어진 환관의 폐해를 익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환관을 억제하는 정책은 특별히 조선 태종과 세종 때에 강력히 시행했다. 고려 말기 환관의 폐단을 직접 목격했기에 이들에게 잡일만 시키고 정사 관여는 엄격히 금지했다(송기호, 2010: 57-58).

23) 환관 김순손의 처벌문제는 다시 연산군 10년에 재발되었는데, 연산군이 술에 취해 선왕조의 후궁을 간음하려 하자 김순손은 잘못을 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산군은 전횡을 휘두르는 시기였기에 김순손의 처벌은 일사천리로 처벌되었다(장희홍, 2002: 182-183).

24) 김처선은 연산군의 폭정 지속에 대한 근심과 대신들의 국왕폐위 음모에 대한 첩보를 접하고 충간을 한다. 군주에 대한 충간으로 환관 김처선은 연산군의 활과 칼로 죽음을 맞이한다. 김처선이 연산군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충간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세종 말년에 궁중에 들어 왔기 때문에 연산군 11년 그의 나이 60-70대의 늙은 내시였을 것이다. 세조 6년 전후로 연산군 11년까지 약 40여년 네 명의 국왕의 모신 내시이다. 특히 왕의 최측근에서 모시는 내시로 원종공신과 자헌대부에 올라 직급도 높았다. 따라서 임금을 모신 최측근 내시로 충언을 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한 김순손이나 김계경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보았다. 자

대권력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완벽한 수하기관으로 조종하는 것이다(장희홍, 2002: 196).

2. 연산군 代 환관정치의 구조분석

연산군대의 환관정치의 구조적 측면은 당대의 환관 김자원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다(윤기철, KBS Media, 2007). 환관 김자원은 연산군의 정치적 권력을 배경(전제권력의 전횡과 이를 선제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환관과 승정원 및 내시부의 강화책)으로 환관으로서 휘두를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자행하여 환관정치 폐해의 상징적 인물이다(장희홍, 2002: 188). 다음은 환관 김자원에 대한 인물됨에 대한 가장사초(家藏史草)에 토대한 사론(史論)²⁵⁾의 내용이다.

사신(史臣)²⁶⁾이 논평하기를, “김자원(金子猿)은 나주인(羅州人)이다. 사람됨이 안으로는 깊이 음적(陰賊:음험陰險하게 남을 해침)하여 사람의 안색(顔色)을 잘 살피고, 또 구별(口辨)이 있어 사람들의 뜻을 변이(變移)함에 능하였다. 오래도록 김순손(金舜孫)과 더불어 한가지로 상전(尙傳)²⁷⁾이 되어 항상 임금 앞에서 급사(給事)

신에게 돌아올 화를 알고서도 연산군 11년 연산군의 국정관리가 올바르게 못하다고 판단하여 왕의 도리를 충심으로 간하였다고 해석된다(장희홍, 2013: 91).

25) 조선왕조실록 편찬시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를 정리·작성해 둔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작성해 둔 사초(史草) 및 승정원일기와 의정부등록 등의 기록과 개인문집이다. 이중 사초는 크게 두 종류이다. 하나는 전임사관 중심의 사초로써 이것은 시정기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춘추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인물의 현부(賢否)·득실과 이에 따른 비밀스러운 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집에 보관해 두는 가장사초이다. 이 기록은 비밀을 요했기 때문에 춘추관에 두지 않고 사관들이 각자 보관하고 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체로 실록에 “史臣曰(사신왈)”이라 하여 실린 사관의 사론(史論)이 바로 가장사초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6) 국사(國史)를 편찬하기 위한 초고인 사초(史草)를 작성하는 춘추관이나 예문관의 관원을 말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신 [史臣]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7) 조선 시대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4품의 관직. 내시부는 태조 원년(1392)에 궐내 음식물의 감독, 왕명전달, 궐문수직·청소 등 궁중의 여러 잡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관아로, 당시 인원은 상선(尙膳) 2인, 상온(尙醢) 1인, 상다(尙茶) 1인, 상약(尙藥) 2인, 상전(尙傳) 1인, 상책(尙冊) 3인, 상호(尙弧) 4인, 상탕(尙帑) 4인, 상세(尙洗) 4인, 상촉(尙燭) 4인, 상환(尙煊) 4인, 상설(尙設) 6인, 상제(尙除) 6인, 상문(尙門) 5인, 상경(尙更) 6인, 상원(尙苑) 6인 등 1백 40명이었으며, 상전은 궁중내 전명(傳命)의 일을 담당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전 [尙

하며 뜻[旨]을 맞추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임금께서도 또한 여러 번 그 능함을 일컬었다. 단지 학문(學問)이 없는 까닭으로 출납(出納)할 즈음에, 무릇 문자(文字)에 관계된 말은 반드시 김순손(金舜孫)에게 양보하면서도 속으로는 실로 그를 꺼리고 모함하여 넘어뜨릴 것을 도모하였으나, 임금께서 엄명(嚴明)이 있었던 까닭으로 감히 함부로 방자하지 못하였다. 당시에 장번 내관(長番內官:대궐 안에 거처를 두고 장기간 대전(大殿)·세자궁(世子宮)에 받드는 내관(內官))으로 근친(親親:고향에 돌아가 아버지을 뵈)하는 자는 반드시 역말(驛馬)을 타고 돌아가게 하였다. 김자원이 전라도(全羅道)에 돌아가면 반드시 그 따르는 무리가 성(盛)하여 한 길[一路]을 침포(侵暴:포악스럽게 행동함)하는 까닭으로 우인(郵人)이 그 선성(先聲:소식)을 듣고는 이마를 찌푸리며 말하기를, ‘김상전(金尙傳)이 또 왔다.’고 하였다. 주현(州縣)에서 뇌물을 주어 그 집에 답지(答至:한군데로 몰려옴)하였으나, 그러나 대낮에 공공연히 바치는 자이면 반드시 거짓으로 거듭 어려운 안색을 하고서 받았으며, 무릇 간청(干請)하는 것은 형적(形跡:흔적)을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은 혹 엄근(廉謹:청렴하고 매사 조심성이 있음)함으로써 일컫는 자도 있었다.” 하였다.

1) 왕권강화와 환관정치의 구조

국왕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내시부의 확대와 강화는 환관정치의 조직적·정치적 배경이 된다. 이것은 또한 내시부의 알력과 분쟁의 씨앗이 되며,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권력 세력간의 암투로 더욱 증폭되기도 한다. 실제 연산군 시대 전후의 내시부 소속의 내시들은 각기 세력화하여 조정대신들과 서로 다른 연대로 세조²⁸⁾와 중종반정 등 국왕의 옹립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환관은 공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환관정치의 발호는 근본적으로 군왕의 왕권강화책에서 비롯된다. 해로도투스의 표현대로 “환관은 군주가 신하를 제어할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신비적인 거리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왕과 신하 사이에 환관이 존재하고 환관은 상전(尙傳)으로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틈새가 형성되고 거기로부터 권력이 생성되는 것이다.

환관 김자원의 왕명출납의 월권에 대한 실록의 기록들이다. 재상(宰相) 임원준(任

傳] (한국고전종합DB,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8) 계유정란(1453년 10월 10일) 2년 후 세조즉위가 이루어졌지만, 계유정란 이전 당시의 환관들은 수양대군(후에 세조)과 안평대군(황보인, 김종서 등 대신들이 수양을 반대하기 위한 대항마로 세움)의 두 계파로 나누어져 있었다(장희홍, 2006b: 139-145).

元濬)은 승정원(承政院)을 경유(經由)하지 않고 김자원을 통하여 왕을 뵈기를 청한 것에 대하여 사헌부에서 간언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왕은 김자원과 임원준(任元濬) 간에 특별한 정실은 없었으니 국문(鞫問)하지 말라하였다.²⁹⁾

한편, 왕명출납에 대해서도 대신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승전내관 김자원을 통하여 정승인사명령을 내린 것에 대하여 승지와 사관(史官)이 참석하여 듣지 못하였음을 간언한 것이다.³⁰⁾

이처럼 김자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산군대 승전색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연산군대 초기부터 왕명 출납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승지와 사관이 모두 입시(入侍)한 상태에서 왕명이 전달되어야 하지만 승전내관 김자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연산군일기 권4, 원년 3월 임인). 김자원이 이처럼 전적으로 왕의 일을 전담하는 한편 연산군의 무도(無道)를 이끌었다(증보문헌비고 권 226, 직관고 내시부조). 김자원은 왕의 신임과 유자광 등의 조관들과도 연결되어 왕명출납을 장악하였다(장희홍, 2004: 117-11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오사화 과정에서 김자원은 왕명을 출납하며 유자광과 서로 교감을 맺고 있었으며, 이는 연산군의 사림세력 척결의 근인(近因)인 것이다³¹⁾(장희홍, 2006b: 118).

승전색 김자원의 임무는 단순히 왕명출납 이상의 것으로 확대 강화된다. 고변(告變: 역모를 고발함)을 들은 김자원은 동부승지로 하여금 승명패를 주고, 범인 및 연루자를 잡아오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다(연산군일기 권56, 10년 10월 신미). 유사하게 직접 승명패를 주고 지시하는 등의 일들을 하였고, 이것으로부터 연산군에게 포상을 받기도 한다(연산군일기, 권57, 11년 3월 계축).

이처럼 연산군대 가장 총애를 받았던 환관은 승전색 김자원이었다. 김자원은 연산

29)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허집(許輯)이 아뢰기를, “임원준(任元濬)이 몰래 아뢰었을 때, 말을 전달한 자도 아울러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을 전달한 자는 바로 김자원(金子猿)이다. 김자원도 또한 그가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임원준이 두세 번 관곡(款曲)히 청하므로 그 늙은 재상(宰相)의 말을 부득이 따른 것이다. 그 때에 김자원이 즉시 이 뜻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김자원이 단정한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끝내 이를 거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실이 없었으니, 그를 국문(鞫問)하지 말라.”하였다(성종 292권, 25년(1494) 갑인 7월 14일(경자) 1번째기사).

30) 연산 4권, 1년(1495) 을묘 3월 19일(임인) 1번째기사

31) “연산군이 광폭하고 음산하여 명령으로 아래 사람을 살해하며 이를 알리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때에 내수(內豎) 김자원이 기밀을 전담하여 폐단을 일삼았다. 폐주(廢主)가 도(道)가 없었는데 김자원이 이를 이끌었다(장희홍, 2002: 189; 『증보문헌비고』 권 226, 직관조, 내시부조).

군을 호가호위하며 왕명 출납을 월권하거나 여러 조관 및 외척세력들과 연결되어 높은 관직을 가졌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비리를 자행하여 환관정치의 상징인물이 된 것이다.

2) 환관과 외척세력과의 구조

환관은 외척세력 혹은 대신조정세력 등과의 연대로 인사청탁 및 결탁의 비위(非違)가 가능하였다. 김자원과 외척세력의 관계를 보면, 한건(韓健)의 경우 외척이기는 하나 승전색인 김자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³²⁾함으로써 승지, 도승지까지 승진한 바 있다(성종실록, 권283, 24년 10월 기축). 이처럼 김자원은 승전색으로서 외척세력들과 관계를 유지하여 외척세력으로부터 청탁을 받기도 하고, 청탁을 하기도 하였다(장희홍, 2006b: 116-117).

상전 김자원은 왕의 외척인 한치례(韓致禮)와 평소 친분이 돈독하였다.³³⁾ 한치례가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 김자원은 자기 동향사람을 지방유생의 교육을 맡아보던 종6품의 벼슬자리를 청탁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신들의 간언으로 이에 대한 성종의 조치는 환관 김자원의 고신을 거두고, 전라도 영암으로 부처(付處: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시키는 것. 중도부처中道付處의 줄인 말)하였다.³⁴⁾

한편, 인사결탁의 비리도 있었던 바, 호조판서(戶曹判書) 정문형(鄭文炯)과 도승지 한건(韓健)³⁵⁾ 그리고 승전색 김자원의 결탁으로 호조판서 정문형의 사직을 되돌려주는

32) 내관 김자원의 부모가 나주에 있어 김자원이 방문하면 외척 한건은 극진히 김자원을 모셨다는 것이다(성종실록 권283, 24년 10월 기축).

33) 외척의 경우 실력보다는 왕의 측근과 친교를 맺음으로써 자리를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왕과 가까이 있는 승전환관과 평소 친교를 맺음으로써 정보를 제공받거나 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자원은 평소 친교가 있던 한치례에게 동향인의 자리를 청탁한 것이다(장희홍, 2002: 186).

34) 성종 140권, 13년(1482 임인) 4월 29일(정묘) 3번째기사.

35) 도승지 한건과 김자원의 결탁에 대한 사신(史臣)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건(韓健)은 탐욕스럽고 비루하고 교묘하게 속이며 교만 횡포하고 겸손하지 아니한데, 일찍이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가 되어 고을에 주구(誅求)하여 조금도 꺼리거나 두려워함이 없이 어기고 거스리는 자는 반드시 해(害)쳤다. 내관 김자원의 부모가 나주(羅州)에 있었는데, 김자원이 귀근(歸覲:고향에 가서 부모를 뵈)하면 뜻을 굽혀 이를 섬기니, 이로써 <한건을> 칭찬하는 말이 위에 들렸다. 무신년(1488 성종 19년) 가을에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가 편찮아서 자못 위독하였는데, 임금이 위로해 기쁘게 하려고 하여 한건을 발탁하여 승지(承旨)로 삼았다. 한건이 직숙(直宿)하면 반드시 내환(內宦)과 더불어 밤에 술

경우도 있었다. 호조판서 정문형이 자신의 아들을 벼슬에 앉히려고 김자원과 결탁하고 도승지 한건에게 인사청탁을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대신들이 간언하자 호조판서 정문형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사헌부에서 왕에게 고한 바와 달리 나쁜 의도 없이 능력있는 자를 천거한 것으로 고함으로써 사직을 되돌려 놓은 일이다.³⁶⁾

3) 환관과 당파세력과의 구조

환관의 자리는 권력암투 세력 간 성패에 중요한 매개역할과 지렛대가 된다. 다시 말하면, 환관의 자리는 국왕의 수문장(gatekeeper)으로서 국왕의 판단과 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환관의 정치화의 요인이자 결과인 것이다.

김자원의 경우, 무오사화 때 연산군의 언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훈구세력이 사림세력을 제거하는데 김자원이 왕명출납을 전담케 함으로써 사림세력이 왕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다. 이 당시의 상황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연산군은 사림세력을 배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훈구세력을 이용하는 바, 마침 훈구세력 유자광은 사림세력의 수장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祭文)』내용이 세조의 왕 찬탈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산군의 진노를 부추긴다.³⁷⁾ 이 과정에서 유자광은 당시 도승지 신수근(愼守勤)도 포획한다. 신수근이 도승지가 될 때에 사림파의 반대로 신수근 역시 사림파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있었다. 도승지 신수근은 이 당시 연산군의 언로를 차단하는 역할, 즉 왕명출납을 환관 김자원에게 전담케 한다.³⁸⁾ 사초사건을

을 마시고 폐간(肺肝: 속마음)을 털어 내어서 서로 사귀었기 때문에 은대(銀臺:승정원의 별칭)의 제공(諸公)이 공사(公事)의 실수로 인하여 대죄(待罪)하지 아니한 자가 적었으나, 오직 한건만은 끝내 대죄하지 아니하였다. 도승지(都承旨)가 됨에 미쳐서는 간알(干諂:사사로운 일로 만나기를 원함) 하는 자가 항상 뒷방에 가득하고, 수령(守令)이 되어 배사(拜辭:지방관이 부임할 때에 전경(殿庭)에 나아가 임금께 숙배(肅拜)하고 하직(下直)하는 자에게 반드시 술자리를 베풀어서 전송(錢送)하니, 몇 년이 되지 아니한 사이에 부자가 되어 새 집을 지었는데, 사람들의 비방이 바야흐로 일어나자 죽었으니, 한건의 다행이다.” 하였다(성종 283권, 24년(1493) 계축 10월 28일(기축) 3번째기사).

36) 성종 242권 21년 1490 경술 7월 29일 기묘 1번째 기사.

37) 사림파 김종직의 『조의제문』사건과 무오사화에 대해서는 연산 30권, 4년 무오 11년 7월 29일(계해) 2번째 기사와 박영규의 책(1996:167-169)참고.

38) “...그리고 내시 김자원(金子猿)으로 하여금 출납을 맡게 하니, 딴 사람은 참견하지 못하였다. 자광은 옥사(獄事)를 자임(自任)하고 매양 자원(子猿)이 교지를 전할 적에 반드시 앞에 나

담당 혹은 기여한 자들에게 후한 포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승전색 김자원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조 종2품인 종친宗親, 의빈儀賓, 문무관의 품계)로 승진한다.³⁹⁾

중종반정과 연산군폐위는 환관 김자원의 왕명출납 전담이 중대한 이유라는 분석이 이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다(장희홍, 2002: 118).

IV. 환관정치의 특성 및 함의

1. 연산군 대 환관정치의 속성

고려와 조선의 환관정책은 중국의 환관제의 폐해를 인식함으로써 제도상으로는 엄격한 통제체제를 갖추고 있었다.⁴⁰⁾ 그러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내시부의 확대강화가 이루어진 바도 있다. 특히 그것은 연산군 대에서 많이 나타났다. 내시부의 조직 및 인력 확대 강화는 다른 정치세력, 즉 왕의 외척 및 대신 그리고 대신들 간 당쟁 등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환관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국정 문란의 원인

아가 공근한 태도를 극진히 보이고, 그 전교의 사연이 만약 엄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스스로 상의 뜻에 맞았다 생각하여 다시 부복(俯伏)하여 마치 신사(申謝)하는 것 같이 하였다. 그리고 다 듣고 물러나와서 흔연히 자부하는 기색이 있어, 마침내는 좌중예대 대고 크게 말하기를, '오늘날은 바로 조정을 개배(改排)하는 때이니, 모름지기 이와 같은 큰 처치가 있어야 하며, 심상하게 다스려서는 아니된다.' 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도당이 매우 성하여 변을 예측할 수 없으니, 방호(防護)를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금위병(禁衛兵)을 뽑아서 궁정(宮庭)을 파수하여 출입을 엄금시켰으며, 일손 등이 국문을 받으러 갈 적에는 군사로 하여금 좌우로 붙잡고 다니게 했으며, 하옥(下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였다'(연산 30권, 4년 1498 무오 7월 29일(계해) 2번째기사).

39) 연산 30년 4년 1498 무오 7월 27일 신유 2번째기사.

40) 다음은 세종이 경연하면서 나눈 대화이며, 이는 환관 역할론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환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강한 통제가 조선왕조체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왕이 “옛날의 제왕이 어찌 환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깊이 믿었을까? 환관은 후사가 없어 원대한 계책은 없고 다만 임금의 위엄만을 빌릴 뿐이다”고 이르니, 설순이 “한 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환관이 황제를 폐하기까지 했으니, 그들이 어찌 원대한 계책이 없겠습니까? 『대학연의』(大學衍義)에 음양의 나쁜 기운이 쌓여서 겉과 속이 같지 않다고 환자를 논평했으니, 국사를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고 아뢰니, 임금이 아주 옳게 여기면서 “환관에게는 다만 청소와 심부름만 맡길 뿐이니, 어찌 함께 정치를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세종실록 10년. 1428. 2월 18일).

이 된다. 환관은 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왕의 일상사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신분이다. 권력이란 절대 권력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 그 힘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다.⁴¹⁾ 그런 의미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내시들은 상당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내시들의 역할이나 권한은 극히 한정되고 미약했다. 다만 연산군 시대에 와서 광폭한 왕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환관들의 뜻밖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으며, 조정 대신들을 제쳐두고 왕에게 직언하는 환관이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박남일, 1995: 212-213).

이와 같이 환관의 발호와 권력은 사회적 배경 속에 있다. 본래 부정과 비리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연계됨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김영중, 1993: 35). 환관의 정치적 권력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기 보다는 외부 세력과의 결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외적 배경으로는 외척세력과 조정 대신들의 세력싸움에서 왕의 최측근인 환관을 통하여 국왕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와 결부된다. 내시는 군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조정의 기밀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 수 있었고, 각 정파 간의 반목과 대립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 정파와 문벌의 두령들은 내시를 매수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비싼 값에 사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군왕은 자신의 손발과 같은 내시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와 재물을 자주 하사하곤 하였다(신봉승, 2009: 99-100).

내시부의 우두머리를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라고 하며, 관직에 판(判)이 붙으면 판서의 지위와 같은 1품직을 말한다. 내시부에서 실제로 장악하는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감’으로 불리는 막중한 자리인 것이다. 판내시부사의 밑에 상선(尙膳)이 두 명으로 종2품이며, 상온(常溫)과 상다(尙茶)가 각각 1명이며 종3품이다. 이 서열로 종9품까지 55명이 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무품의 내시가 있어 내시부의 총원이 140명이었다(신봉승, 2009: 100).

이와 같은 내시부의 인력과 직급은 조직적·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시부의 영향력 확대 및 강화는 국왕과 대신 간, 국왕과 대신 세력들 간, 국왕과 외척세력 등과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교묘하게 왕권강화책으로 활용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다.

연산군대의 정국은 연산군의 왕권강화책과 외척세력의 둘러싼 사림세력과 훈구세

41) Stephen P. Robbins(1983: 174)의 ‘권력 핵’(power core) 이론에 따르면 권력의 핵에 근접하면 할수록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력과 권력투쟁의 구조는 환관정치의 발생에 최적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환관정치의 숙주가 되는 것이다. 환관의 호가호위는 숙주에 기생하는 모습인 것이다.

2. 환관 김자원의 말로

환관 김자원은 중종반정 때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며, 환관정치 폐해의 화신으로 평가받는다. 환관으로서 김자원의 부정(不正)은 아래의 인용문이 웅변한다.

“연산군이 광폭하고 음산하여 명령으로 아래 사람을 살해하며 이를 알리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때에 내수(內豎) 김자원이 기밀을 전담하여 폐단을 일삼았다. 폐주(廢主)가 도(道)가 없었는데 김자원이 이를 이끌었다.”⁴²⁾

이처럼 환관 김자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는 바, 왕의 잘못을 가리어 대신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신들의 소리를 감추어 왕의 귀와 눈을 가리는 부정을 행한 것이다. 특히, 왕의 전제권력을 배경으로 왕명의 출납을 월권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다. 그리하여 김자원이 왕명 출납을 전담하였던 결과로 중종반정과 연산군폐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다(장희홍, 2002).

3. 본 연구의 함의

환관정치의 숙주인 사회적 권력구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마치 상수처럼 존재한다. 인간사회에서 권력암투는 존재해 왔으며, 그 구조는 조건과 상황만을 달리하면서 여전히 존재해 왔다. 따라서 역사적인 환관정치의 구조로부터 교훈을 적시하는 것은 현대 참모의 역할론에 대한 정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는 비선실세의혹은 연산군대의 환관정치의 발호구조와 일맥상통한다.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 되곤 있는바, 세 그룹이 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들은 권력독점 혹은 남용이 있었다.⁴³⁾ 세 그

42) 『중보문헌비고』 권 226. 직관조, 내시부조; 정희홍, 2002: 189.

43)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친형이 영향력을 행사해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것이 형님을 통하면 된다)’이라는 말을 세간에 회자되었다. 또한 대통령과 동향인 영일·포항 출신 고위

룹으로는 대통령의 친·인척 그룹, 대통령과 정치적 고락을 같이한 가신(비서 혹은 참모)그룹 그리고 공신그룹으로 이들이 비선으로 지목된다(김은정, 2014).

따라서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환관정치의 발호구조와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재가 그것의 규범적인 존재방식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Keysers, 2018: 316). 따라서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규범적으로 존재해야하는 고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참모역할과 관련한 구조적 부적절성의 원인과 분석의 미흡함이 현대 행정조직에서 참모론에 대한 설득력있고 타당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 고대사에서 발호한 환관정치의 구조와 조선시대 연산군대 환관정치의 구조가 일맥상통함을 제시하였다. 명백히 시기와 나라도 다르지만, 환관정치의 구조는 동일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에서도 유사한 비서정치의 구조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한국 역대정부에서 드러난 비서정치 구조를 분석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현대 조직에서 참모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의미가 크다. 실존적인 참모정치의 순기능적 모형의 부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Bolman & Deal(1991)의 지적처럼, 조직에 정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정치가 있는가가 문제이다. 참모정치는 존재하는데, 순기능적인 참모정치의 원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참고할만한 참모정치의 원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환관 김자원과 동시대의 인물인 환관 김처선의 정치적 행태를 연구함으로써 그 모형의 초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과제는 환관정치의 구조를 모형으로 근거하여 한국의 현대 정치구조에서 비서정치의 발호구조를 탐색할 필요를 가진다. 이러한 후속 연구의 모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는 현대 비서정치의 이해와 분석에 매우 유의미한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친형의 인사 개입설이 제기됐다. ‘봉하 대군(大君)’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실세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불법 대선 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동교동계 비선라인’이 부각된 바 있고, ‘홍삼 트리오’로 불린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은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실권을 행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척이 주도한 ‘월계수회’는 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김은정, 2014).

영혼이 없는 전문가의 폐해는 현대 사회에서 참모직의 그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니 더욱 더 강조되어진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환관정치의 폐해를 통하여 학습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적합한 참모론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비서(참모)의 영혼성, 즉 직업적 책임의식에 기초하여 자신의 가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이 조직 목적 지향성, 사회적 가치지향성이 되어야 한다. 기실 비서와 참모에 대한 부정적 어감과 인식은 비서와 참모의 무영혼성과 예측성의 문제였다면 이에 대한 교정이 요청되며, 이것의 교훈은 역사 속에서 탐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의 후속 과제는 연산군대의 환관 김자원과는 다른 한명의 충성스러운 환관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환관 김처선의 자세(mind-set)를 분석하는 것은 비서의 영혼성에 대한 이념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비서의 도덕적·규범적 문제에 대한 토론과 도덕적 관점이 부재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비서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햇빛과 물 없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Bolman & Deal, 1991: 337).

참고문헌

- 김영종. (1993).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 김은정(2014. 12. 4). 여당 내에게 '문고리 권력 3인방 퇴진론' 솔솔. *조선일보*, p.A4.
- 박상진. (2005). 「내시와 궁녀, 비밀을 묻다」, 서울: 가람 기획.
- 박영규. (1995). 「조선왕조실록」, 도서출판 들녘.
- 박인수. (2003). 「환관-황제의 비서실장」, 서울: 도서출판 석필.
- 송기호. (2010). 왕의 그림자, 환관. 「대한토목학회지」, 58(3). 52-61.
- 신봉승. (2009). 「조선도 몰랐던 조선」, 청아출판사. pp. 97-102.
- 윤기철, KBS Media, (2007). 역사의 라이벌, 김처선과 김자원 [비디오녹화자료]
- 이맹주. 2017.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논리와 성과논리. 「한국조직학회보」. 14(1): 1-26.
- 장희홍. (2013). 조선시대 환관 김처선의 활동. 「대구사학」, 113. 67-98.
- 장희홍. (2006a). 「조선시대 정치권력과 환관」, 서울: 경인문화사.
- 장희홍. (2006b). 「내시, 권력을 희롱하다」, 경인문화사.
- 장희홍. (2005). 조선후기 실학자의 환관제도 개혁론-반계·성호·다산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41집. 29-53.

- 장희홍. (2004). 조선시대 환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희홍. (2003). 조선초기 환관제의 정비와 운영. 「경주사학」, 제21집. 137-165.
- 장희홍. (2002). 연산군대 환관정책과 내시부의 위상강화. 「경주사학」, 제21집. 169-204.
- 정두언. 2017.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 21세기북스.
- 정희진 외. 2018. 정치기술 이론에 의한 청소년단체 기관장의 정치행위분석. 「한국조직학회보」, 14(4): 55-74.
- 차문수. (2009). 「전제군주시대 환관제도와 현대 비서제도와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허문명. (2008. 1. 5). 횡설수설: 영혼없는 관료. 동아일보. A30면.
- 태종실록, 문종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 三田村泰助(2012). 宦官-側近政治の構造. 개판. 中央新書7. 한중수 옮김. (2015). 환관이야기-측근정치의 구조. 서울: 도서출판 아이필드.
- Bolman G. L. & T. E. Deal. (1991). Reframing Organizations. 김영진 외 공역. (1993). 비전시대의 조직패러다임. 서울: 미래경영개발연구원.
- Keysers, Christian. (2011). The Empathic Brain : How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Changes Our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Social Brain Press. 고은미, 김잔디 옮김. (2018).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가 : 거울뉴런과 뇌 공감력의 메커니즘. 바다출판사.
- Robbins, Stephen P. (1983). *Organization Theory: The Structure and Design of Organizations*. New Jersey:Prentice-Hall.
- Weber, Max.(1920).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1,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pp.1-236. 김덕영 옮김(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도서출판 길.